



결혼 비용 물가가 오르면서 하객들이 축의금 고민에 빠졌다. 최근 광주시 웨딩홀에서 열린 한 결혼식 장면.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뛰는 결혼 물가...축의금 얼마나

고물가에 광주 지역 예식장 식대도 수직 상승하며 부담

회사원 박호진(29)씨는 최근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한다. 축의금으로 내는 1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예식장 식대가 날로 비싸지다 보니 이제는 10만원도 신랑·신부 입장에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박씨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청첩장 모임해서 밥 사주면 10만원, 모임 안하고 청첩장만 받으면 5만원 계좌이체를 하자고 규칙을 정했는데, 10만원을 들고 가도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라리아예 결혼식장을 안 가고 5만원을 이체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나종규(60)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축의금 낼 일이 많다 보니 생활비마저 빠듯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식대가 비싸다 보니 가까운 친구 자녀 결혼식이면 20만원 이상씩 내야 하고 5만~10만원 정도 낼 때는 식당에 가기에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나씨는 "관계가 있으니 아예 모르는 척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번 챙기다 보면 정작 생활비가 모자랄 때가 많다"고 했다.

광주 지역 결혼식 식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축의금 부담이 하객들의 새로운 스트레스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식 식대가 7만~8만원대까지 오르면서 10만원의 축의금조차 적게 내는 것처럼 느껴져 식당을 찾아가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광주의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6만4000원이다.

이는 전국 예식장 식대 중간가격인 5만8000원을 웃도는 가격이며, 서울(강남 8만 8000원·강남 외 7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전라권(전남·전북) 평균(4만9000원)과는 1만5000원 더 비쌌다.

4일 광주 지역의 각 예식장 식대는 대부분 6만~7만5000원대로, 일부 예식장 식대는 8만원

5만원? 10만원? ...하객들 고민
광주 식대 중간가격 6만4000원
평균 식대 총액도 1206만원
뷔페 문화에 축의금 덩달아 올라

광주 예식장 식대 보니

메리포엠 6만5000원
위더스 7만8000원
드메르 6만3000~6만8000원
까사디루체 5만8000~6만7000원
더 시그너스 웨딩 6만 5000원
제이아트웨딩컨벤션 6만4000원
글로리아 웨딩홀 7만원
홀리데이 웨딩홀 6만6000원
JS웨딩홀 6만5000원
라뷰 웨딩홀 5만5000~6만원
메종드엘 7만5000원

에 육박한다. 다만, 요일·시간대·방문 상담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는 게 예식장 관계자들 설명이다.

광산구 '메리포엠'은 올해 1인당 식대를 6만5000원에서 내년 6만7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메르'는 6만3000~6만 8000원을 요구했으며, 함께 운영 중인 '하우스오브드메르'를 이용하려면 인당 7만8000원을 내야 한다.

서구 '위더스'의 식대는 7만8000원, '메종드엘'은 7만5000원 식대를 요구했으며, '글로리아 웨딩홀'은 7만원, '까사디루체'는 토요일 6만7000원, 일요일·비수기는 5만8000원 등 가격을

책정했다.

'홀리데이 웨딩홀'은 6만6000원, 'JS웨딩홀'과 '더 시그너스 웨딩'은 6만5000원, 제이아트웨딩컨벤션은 6만4000원이며 라뷰웨딩홀은 5만5000원부터 6만원대 가격을 보였다.

광주 예식장의 평균 식대 총액은 1206만원으로, 전체 결혼서비스 비용(1647만원)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축의' 금이지만 10만원이 기본이 된 축의금 가격이 부담돼 참석 대신 5만원 계좌이체만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 전지현(여·22)씨는 "자격증 시험 준비 때문에 알바를 따로 안하고 용돈받아 쓰는데 최근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 축의금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햇지피티한테 '대학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하냐'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면 3만원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눈치가 보여서 5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린 한정관(30)씨는 "요새는 결혼식 참석하면 10만원은 기본으로 내고, 아내나 가족을 데려가면 5만원 이상 더 내고 있다"며 "결혼식으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식대가 7만5000원인 곳에서 결혼해보니 식대 계산이 돼서 적게 못 내겠더라"고 말했다.

소승희(여·55)씨는 "결혼식에 뷔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부담을 키운 원인"이라며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블랙처럼 식사를 대접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뷔페가 생기고 예식장이 고급화되면서 축의금도 덩달아 경증 뛰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축의금 송금부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평균 축의금 금액은 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축의금 금액은 지난 2021년 7만3000원에서 2022년 8만원, 2023년 8만3000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변호사도 속았다

가짜 경력 내세워 동료 수감자에 10억 뜯고 변호인과 혼인신고까지

광주지법, 50대 징역 6년 선고

"난 통장에 300억원을 갖고 있는 기업가다",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과정을 거치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을 지낸 재력가다"

허위 경력을 내세워 동료 수형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어내고, 변호인과 혼인 신고까지 한 50대 사기범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위조공문서 행사·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던 당시 허위 학력, 재력 등을 내세워 동료 수형자에게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4개 기업의 실제 사주이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 주가조작을 해 징역을 살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 석사학위를 받고 있었으며, 증권사 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 원 안팎의 통장 잔고를 보유 중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이같은 경력, 재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경력을 믿은 동료 수형자에게 '인수합병 예정인 법인 주식을 미리 매입하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 때 1주당 1290원짜리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부풀려 6억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접견하러 오자, A씨는 "모의요리기 회사의 매출채권을 만들어 회사 이익 잉여금을 빼돌릴 수 있다. 투자하면 두 달 안에 6배를 번다"고 꼬드겨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주가 조작으로 수감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 넣어 변호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기업 사주, 인수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의 접견 변호사 C씨의 환심을 얻어 2019년 10월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4개월만에 A씨의 언행을 거짓임을 알아채고 이혼소송을 청구, 2022년 이혼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공공연하게 "변호사 C씨와 자신 사이에 10살 된 딸이 있다", "C씨가 접견 올 때마다 특혜를 받아 애정행각을 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그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소년 패거리’ 2명이라더니...경찰, 조사 대상 확대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 '청소년 갯단'이 횡포를 부린다는 사건(광주일보 12월 1일 7면)과 관련, 10대 학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던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4일 A(15)군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날 22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또래 학생 B군을 둔기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손가락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3일 경찰청에 자신 출석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과거 절도, 공갈 등 전과를 갖고 있는 만큼 여죄를 모두 조사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 초기 B군 가족 등은 강도상해 사건을 방조한 학생들을 다수 지목해 경찰에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A군 등 2명만 가해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사건 현장 일대에서 무리 지어 다니는 청소년 패거리가 다수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범 여부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 등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검·경 허술한 체포 시도...피의자 추락사·도주 잇따라

검찰·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려다 피의자가 추락사,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대구동부경찰에 쫓기던 30대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상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객실까지 찾아오자, 창문을 넘어 외부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데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B씨가 검찰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달아났다.

B씨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광주지검 수사관에게 "짐을 챙기겠다"고 말한 뒤, 자기 차량을 타고 도주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일째 B씨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전원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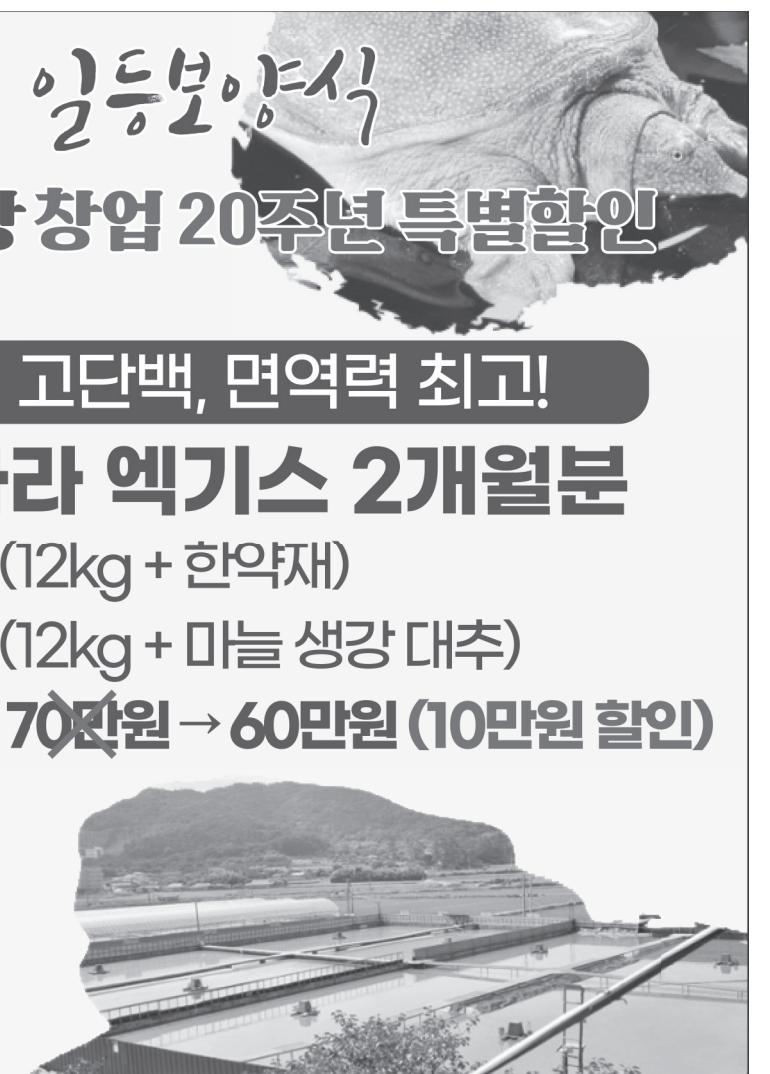
T. 062)531-3530, H. 010-9229-3530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